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7월 9일(월)에 배포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함께 만들어요!**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심 확산위해 제2차 여성친화도시 포럼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7월 9일(월)

보도 날짜 : 2012년 7월 9일(월)

언론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7월 11일(수) 오후 2시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5층강당에서 제2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후원한다.

제2차 여성친화도시포럼 개최

 <p>제2차 여성친화도시 포럼</p> <p>일시: 2012. 7. 11(수) 14:00~17:30 장소: 사상구 다누림센터 5층강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일시 2012년 7월 11일(수) 14:00-17:30<input type="checkbox"/> 장소 사상구 다누림센터 5층강당<input type="checkbox"/> 주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input type="checkbox"/> 후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	---

※ 여성친화도시

: 지방자치단체, 각계 전문가, 여성단체, 지역주민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2012년 현재 3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맺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임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7월 11일(수) 오후 2시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5층강당에서 제2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후원한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열린 제1차 포럼에 이어 이번 제2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은 부산지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다.
- 당일 포럼에서는 서금홍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여성의 공간 사용권과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의 실제”를 주제로, 김귀순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교수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조성: 기후친화도시 조성의 실제”를 주제로, 이현정 사하품앗이 대표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 사하품앗이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임숙자 맨발동무도서관 관장이 “돌봄 공동체로서 마을도서관 사례: 부산 맨발동무도서관”을 주제로 발표하며,

- 이동현 부산발전연구원 광역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강인순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순희 부산여성뉴스
대표, 김지현 부산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연구위원,
김성수 사상구 복지서비스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최금숙 원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상구에서 개최하는 제2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이해를 확산시키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2012년 총 4차례에 걸친 권역별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붙임 1. 프로그램

2. 발표자료 요약본

붙임 1. 프로그램

<프로그램>

13:30-14:00	등 록	
14:00-14:20	인사말	사회: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장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14:20-14:30	환영사	송숙희 사상구청장 김판중 사상구의회 의장
14:30-14:40	동영상	여성친화도시 홍보 동영상 상영
14:40-15:40	주제발표	·주제1 여성의 공간 사용권과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의 실제 서금홍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2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조성: 기후친화도시 조성의 실제 김귀순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교수 ·주제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 : 사하품앗이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정 사하품앗이 대표 ·주제4 돌봄 공동체로서 마을도서관 사례: 부산 맨발동무도서관 임숙자 맨발동무도서관 관장
15:40-15:50	휴 식	
15:50-16:50	토 론	이동현(부산발전연구원 광역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강인순(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순희(부산여성뉴스 대표) 김지현(부산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연구위원) 김성수(사상구 복지서비스과장)
16:50-17:30	질의응답 및 폐회	

붙임 2. 발표자료 요약본

주제1. 여성의 공간 사용권과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의 실제

서금홍(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도시 공간들을 대상으로 여성 친화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그 형성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배려에 인색했던 기존의 도시 공간들에 대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도시 건축분야에서는 무장애 공간 설계가 법제화되었으며, 공공 공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시켜나가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와 도시 공간들에 대한 여성 친화적 공간으로의 개선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하기에는 현재의 도시 정책이나 도시 기반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여 우선 주어진 과제들을 나열하고 사업진행 순위를 조절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나의 일상과 마주치는 도시 공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니, 우선 일상 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거 공간에서의 편리성과 안전성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다. 늘 새로운 시스템들이 쏟아지는 만큼 다행히도 최근에는 주거공간은 여성이 주 마케팅 대상으로 인식이 바뀌어 있다.

사회 생활을 위해 집을 나서서 이동하는 경로 상에 만나는 공간, 특히 구시가지의 경우는 첫대면하는 골목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을 것이다. 일하는 여성이라면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가 보육과 교육인데, 신뢰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모든 선택의 일순위에 있다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비일상적인 공간으로서는 우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확충과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 주요시된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제외하고는 가족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린 공원은 극소수의 도시민에게 제공되는 특혜이다.

도시 속에 잠재된 수많은 위험 요소들로부터 나와 가족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상의 커뮤니티 공간이 많아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라면 우리는 이 도시가 참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바꾸자!

우리가 원하는 도시 공간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소중한 나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도시 공간 만들기에 참여하여, 잘 만들어진 이 도시를 나의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물려줄 수 있도록 가꾸어 가는 주체가 되겠다고...

주제2.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조성: 기후친화도시 조성의 실제

김귀순(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교수)

김귀순 교수는 기후친화도시를 제안하면서 기후변화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후 변화커뮤니티, 기후친화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기후친화커뮤니티는 커뮤니티 전체가 온실가스에 역점을 두면서 기후변화의 주요인인 환경영향을 줄이는 정책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친화 파트너십이란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것으로 기후친화 커뮤니티 조성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여성의 참여이다. 성인지적 접근방식으로 성별 기후변화 역량을 구축하여 성평등과 기후행동을 연관시켜야 하며, 기후파트너십 행동주체들의 개개인의 사고들을 종합하여 기후친화 파트너십의 비전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별 기후 행동유형의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3.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 지역공동체 사하품앗이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정(사하품앗이 대표)

현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 지역공동체 사하품앗이가 꿈꾸는 세상이다.

2007년 사하지역에서 지역화폐 ‘송이’를 만들고 회원들과 지역화폐를 통한 거래를 시작하면서 출발한 사하품앗이는 지역의 경제순환시스템을 마련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후 품앗이 학교 등 회원들의 재능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소모임을 거쳐 만들어진 친환경생활용품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송이아띠 사업단’이 2010년 부산형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2년차에 이르고 있다.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은 크다. 지역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여성들로 이뤄진다. 돌봄과 나눔의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성장해간다. 공동체는 자치, 문화, 경제,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기 특성을 가지고 형성되기도 하고 한 공동체에서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뤄지기도 한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나 간병, 보육, 재능나눔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는 활동속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순환이 이뤄지게 된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자본의 성격이나 운영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공동체 속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이 마을을 살찌우고 여성의 일자리와 성장을 이뤄내게 된다.

주제4. 돌봄 공동체로서 마을도서관 사례: 부산 맨발동무도서관

돌봄, 도서관에서 읽다

임숙자(맨발동무도서관 관장)

2005년 7월 17일, 부산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 어린이책문화운동을 하는 마을사람들 등 도서관을 해 보자고 모여서 시작하였다. 살기좋은 마을이 필요하다, 마을에서 아이손을 잡고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사랑방같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도서관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는 많은 책과 쾌적한 환경, 좋은 시설을 가진 도서관보다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따뜻한 평상같은 공간을 원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개관하고 3년동안 책도 사람도 점점 늘어나서 더 넓은 공간에 대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다. 마을과 먼 곳에 있는 맨발동무도서관의 친구들과 느티나무도서관재단, 미래포럼 만분클럽의 뜨거워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공간이전을 하게 되었다.

새집에서 2년째 살고 있다. 맨발동무도서관은 누구나 행복한 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

도서관은 마을사람 누구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기 책을 찾아 만나고 책과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쉽터가 되기도 한다.또한 마을로 찾아가는 이용자서비스(책읽어주기 등)와 다양한 연령층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책문화활동들을 하고 있다. 책읽어주기나 작은 전시회, 밑줄낭독회 등 책과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유쾌한 일들을 통하여 도서관은 마을배움터가 된다.

30-40대 여성들은 결혼과 육아기간을 통하여 자신감을 잃어가는 시기를 만나게 되는데 도서관에서 자기 재능과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연령을 만나게 만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제 맨발동무도서관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다정한 어른으로, 마을사람들의 따뜻한 친구로,

마을의 일상을 함께 나누는 마을사람으로 이야기꽃, 사람꽃, 책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공간이 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